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연준 금리 결정 앞두고 증시 관망세

-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S&P500 -0.3%
- FOMC 회의, 금리 결정 앞둔 경계감
- 6월 구인건수 예상 하회

Summary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함. 이 날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선 경계심리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는 약세를 보임. S&P500 지수는 0.3% 하락한 6,370.86에 거래를 마쳤음.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각각 0.38%와 0.46% 하락하며 마감함. 러셀2000 지수는 소형주 중심의 약세가 지속되며 0.61% 하락함. 시장은 연준의 다음 금리 조정 방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연준 내 이견, 경제 전망 및 통화정책 방향 등을 밝힐지 기대하고 있음. 한편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 노동부가 발표한 JOLTS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구인 건수가 743만7천 건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전달 대비 감소세를 보여 고용 시장의 둔화 신호를 감지함. 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97.2를 기록하며 약간의 반등을 보여 시장의 소비 심리 개선을 시사함.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5일 협의한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고 추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주 예정된 경제 지표 발표 및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다우 -0.46%, 나스닥 -0.38%, S&P500 -0.30%, 러셀2000 -0.61%)

특징종목

코닝(+11.9%)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했고, 미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인사이트(+10%) 또한 주요 생물의약품 판매가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초과한 2분기 실적 덕분에 주가가 크게 올랐음.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9.7%)은 미국 정부와의 법적 청산 이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급등했음. 반면 로열 캐리비안(-5%)은 새로운 선박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주가가 하락했음. 메타(-2.5%)는 대규모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였음. 이러한 주식 시장의 변동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기업의 실적 발표, 시장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 노보노디스크(-22%)는 Ozempic 및 Wegovy 제품의 매출 감소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함. 신임 CEO Maziar Mike Doustdar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상태임. UPS(-10%)은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주가가 하락함.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페이팔(-8.7%)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비즈니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함.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투자자들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일라이 릴리(-5.6%)는 주요 경쟁사인 노보 노르디스크의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보잉(-4.4%)은 2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향후 사업 개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약세를 보이며 4.33%로 하락함.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확장에 대한 조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 브라질과 러시아의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에서는 금리가 31.82%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98.92로 강세를 유지하며, 이는 지난 글로벌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결과, 유로와 GBP의 약세에 기인함. EUR/USD는 1.1545로, GBP/USD는 1.3349로 하락함. 이러한 동향은 EU와의 무역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하루 동안 3.81% 상승하며 배럴당 69.25달러에 거래됨. 이는 여름철 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임. 금 가격은 온스당 3326.43달러로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최근 몇 주간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